

홍콩 시위 강제 해산 임박...경찰 준비 완료

중법원 주요 일간지에 퇴거 요구 공고 게재 경찰 시위진압 대비 7000명 즉각 출동 태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인 철회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의 도심 점거 시위가 16일(현지시간)로 50일째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 해산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앤디 장(曾偉雄) 홍콩 경무처장은 전날 오후 “법원의 ‘점거금지 명령’을 집행하는데 협조할 준비를 마쳤다”며 “법원 명령의 집행 협조에 전력을 다해 도로가 정상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신보(新報)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홍콩섬 애드미럴티(金鐘) 지역의 시타타워(中信大廈) 주변과 까우룽(九龍) 반도 몽콕(旺角) 등 점거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시위대가 바리케이드 철거 등을 방해할 경우 즉각 강제 해산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전날 시위대가 점거해온 시타타워 주변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공고를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비롯한 여러 일간지에 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홍콩 당국에 농성

장 강제 퇴거조치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전 법적 절차로서, 주요 신문에 공고를 게재한 것은 처음이다.

공고는 “원고 측(당국)이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집행관의 조력을 받아 질서를 회복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경찰은 시위진압에 대비해 지난 13일부터 휴가를 취소하고 7000명의 경찰력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심 점거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센트럴을 점령하라’의 공동 대표인 베니 타이(戴耀廷) 홍콩대 법대 교수는 시위대에 법원 명령 집행이 시작되면 저항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날 호주에서 주요 20개국(G2) 정상회의에 참석해 “홍콩인들은 현재 보통선거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말하면 민주주의는 서방의 가치일 뿐이라는 말을 듣지만, 나는 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앞서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



홍콩 애드미럴티(金鐘) 지역의 도로를 점거하고 텐트 농성을 하는 시위대 모습. /연합뉴스

위원회(CECC)는 지난 14일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발표하고 홍콩 시민의 보통선거권에 대한 지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홍콩 행정장관실은 “외국 정부와 의회가 헌법 개혁은 홍콩의 내정이라고 원칙을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심 점거 시위에 대해 반대하는 홍콩 시민이 찬성하는 시민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콩 중문대학교 미디어 및 설문조사

센터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도심 점거 시위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난 10월 조사 때보다 4%포인트 하락한 33.9%인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포인트 늘어난 43.5%로 집계됐다. 대만의 중앙통신사(CNA)가 보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만 15세 이상의 홍콩인 103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합뉴스

IS, 미국인 또 참수...3번째

미군 특수부대 출신 20대 시리아서 난민 구호 중 납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국 구호 활동가 피터 캐시(26)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참수당했다고 16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전 세계가 비인도적이라고 간주하는 테러집단의 사악한 행동에 캐시가 목숨을 잃었다”며 “그의 부모와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IS가 같은 식으로 살해한 제임스 폴리, 스티븐 소트로프의 이름을 거명하며 “IS의 행동은 이슬람을 포함해 어떤 신앙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캐시가 밝힌 빛이 결국 IS라는 어둠을 이길 것”이라고 전했다.

캐시는 미국인으로는 3번째, 서방 국적자로는 5번째로 IS 및 IS 연계 세력에 참수당했다.

IS는 이날 16분짜리 영상을 공개했으며 이 영상의 끝 부분에는 IS 대원으로 추정되는 영국 발음의 복면 차림 남성이 나와 참수된 채 피투성이인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캐시이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있었다.

다만, 영상에서 캐시의 참수 부분은 참수 전 유언이나 참수 장면, 다음 참수 대상 예고 등이 나오지 않고 카메라도 한 대만 쓴데다 화면이 어두운 등 IS의 그간 참수 영상과 달라 의문이 일고 영국 인디펜던트는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뉴욕타임스(NYT)에 “영상을 찍던 도중 어떤 일이 생긴 것 같다”면서 캐시가 마지막 순간 저항을 하거나 도망을 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캐시는 미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2007년 이라크전에 참전했으며 전역 후 시리아 난민 구호활동에 투신하다 지난 10월 IS에 납치됐다.

그의 부모는 성명을 내고 아들의 죽음이 비통하지만 캐시가 시리아 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일하다가 희생됐다고 자랑스러웠다고 밝혔다.

아울러 캐시가 IS가 의도한 대로 살해된 사실보다 그가 생전에 한 구호활동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영상 속 캐시의 모습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4만 마사이족 퇴거 명령 탄자니아 국제 비난 직면

탄자니아 정부가 두바이 왕족의 사냥 구역 조성을 위해 마사이족 4만명에게 울 연막까지 퇴거하라는 명령을 내려 비난을 받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의 퇴거 명령이 내려지자 마사이족 대표들은 18일 미젠고 핀다 총리를 만나 정부의 토지 매각 계획에 강력 항의할 예정이다. 마사이족은 가족 방목에 중요한 이 토지가 매각될 경우 마사이족이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강탈당할 뿐 아니라 마사이족 8만명의 생계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탄자니아 정부는 세렝게티 국립공원과 접한 로리온도 지역의 1500㎢ 구역에 아랍에미리트 소재 사냥 및 사파리 관광업체 OBC가 접근할 수 있는 ‘야생 동물 이동통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의 거센 반발이 일자 이 제의를 철회했던 탄자니아 정부는 이번에는 지난해와 달리 직접 보상 대신 사회·경제적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10억 탄자니아 실링(약 6억3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하고 있지만, 마사이족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 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 ‘후강통’ 개시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인 ‘후강통’ 17일 개시됐다. 앞서 중국 증권 관계자들이 ‘후강통’ 개막행사를 가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을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을 매매하고 중국 본토 투자자들도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거의 전면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인 ‘후강통’ 17일 개시됐다. 앞서 중국 증권 관계자들이 ‘후강통’ 개막행사를 가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을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을 매매하고 중국 본토 투자자들도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거의 전면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합뉴스

한국 식품업체, 나폴레옹 모자 거액 낙찰

하림 ‘신사옥에 전시 할 것’ 26억원...모자 역대 최고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상징과 같은 이각(二角) 모자(사진)가 거액에 한국 식품업체 ‘하림’(회장 김홍국)에 낙찰됐다고 AFP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폰텐블로의 오세나 경매소는 이날 모나코 왕실이 소장해오다 경매에 내놓은 나폴레옹의 모자가 모자 경매가격으로는 역대 최고인 188만4000유로(약 25억 8000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경매에 참가한 하림 직원 이태근씨는 AFP에 “상사(boss)를 대신해 왔다”며 하림 측이 현재 건설 중인 신사옥을 위해 이 모자를 샀다고 말했다.

이씨는 “우리는 이 모자를 전시해 사람들이 오게 하고 싶다”며 “또 우리 회사 직원들은 (나폴레옹과 같은) 한국의 개척가”라고 덧붙였다.

낙찰된 나폴레옹의 검은색 펠트 모자는 나폴레옹이 지휘하던 부대의 수의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실 사용자가 없어 크게 닳지 않은 상태다.

모나코의 현 국왕 알베르 2세의 증조부인 루이 2세가 수의사의 후손으로부터 이 모자를 직접 사들여 왕실 소장품



으로 삼았다가 이번에 경매에 내놓았다.

이각 모자는 양쪽으로 뿔이 접힌 모서리가 있는 모자로 19세기 프랑스 등에서 유행했으며 나폴레옹도 썼다.

경매소 측은 예초 낙찰 가격을 50만 유로(6억9000만원)로 예상했으나 4배에 가까운 높은 가격에 팔렸다.

나폴레옹의 모자 120개 중 현재 남아 있는 모자는 19개뿐이며 이 가운데 2개만 민간인이 소장하고 있다.

나폴레옹과 먼 친척 관계인 모나코 왕실은 이 모자와 함께 수십 개의 메달과 장식용 열쇠, 문서, 보석이 박힌 칼, 총알 구멍이 난 부대 깃발을 포함한 다양한 나폴레옹 유품을 함께 경매에 내놓았다.

알베르 2세는 경매 안내 키타로그에서 모나코 왕궁 보수비용을 대고자 소장품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입지에 반하고 단지에 놀라다!

Beache
근화 옥암베아채

일부세대를 특별히 분양받는 마지막 기회!

남약신도시 최고의 자리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누리는 생활인프라!

혜택 1

저금리로 내 집 마련 최적의 기회!

혜택 2

안방/거실 에어컨 무료제공

혜택 3

단지내 수영장

84㎡(구34㎡ A,B) / 84㎡(구35㎡) 총 831세대

시행: 근화건설(주) 시공: 우남건설

즉시 입주가능!

근화 옥암베아채

문의 **061) 287-7878**